

월요논단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제주도는 지금 향후 10년 동안 제주 지역 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위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 중심으로 내년 5월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본인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 개발계획에 여러 차례 참여해 왔지만, 이번 계획수립은 전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도민이 제주지역개발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다

방향에서부터 전략까지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개발의 축소와 환경보존이 단연 앞선다. 둘째는 도민참여단만이 아니라 도의회, 도청 등 중심기관들도 미리 개발 방향이 성장을 최대한 촉진하고 환경보존 등 내부관리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국가 정책 중의 하나인 국제 자유도시라는 명칭에 맞는 개발보다 제주지역개발관리, 즉 환경보존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도민참여단 의견과 일치한다. 때문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은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내생적 개발 방향이 중심이다. 사실 지금의 제주투자 환경은 국외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자본도 유입되기 불리한 조항과 분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많다. 국제 자유도시를 추진할 때 무관세(no tax), 무비

자(no visa), 무규제(no regulation)라는 3무를 얼마나 강조했는가. 그런데 지금은 이와는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개발의 방향이 외생이나 내생적 개발이냐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다만 이 방향은 주민들이 수용해야 하므로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개발의 방향은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보존을 강조하면 주민 소득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제주도민의 소득은 2018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약 30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11위다. 1위인 울산의 6500만원에 비하면 2분의 1수준이다. 지금 계획의 방향으로 가면 이보다 순위가 더욱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제주개발은 수십 년 동안 외부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해 왔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과 이웃 국가들이 제주개발과 거의 비슷하다. 본인 역시 내생적

개발을 줄곧 주장해 왔지만, 내생적 개발은 제주도 개발이 오랫동안 외생적 개발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뿌리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야 내생적 개발의 구조인 경제와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급회전은 단순한 제주개발의 후퇴가 아니라 개발동력의 단절을 의미한다. 개발동력의 단절은 경쟁력 상실과 이어져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제주개발은 환경을 보존하는 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단순한 주장보다는 주민의 삶을 고려한다면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이전보다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들이 도입돼야 한다. 제주도는 아직은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국제적 규모의 경제개발, 국제수준의 사회개발은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주가 살고, 도민의 보통 수준의 삶이나마 유지될 수 있다.

열린마당

'청렴'을 '편안하다'로



문형석
등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 덕목 중 하나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건강한 공직사회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 부패로부터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청렴과 부패의 갈림길에 주어진 열에 열 정직한 길로 갈 순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는 게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잘못 한 줄도 모른 채 부패된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을까? 청렴한 사람은 성품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어야 하는데, 부패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품이 맑고 탐욕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청렴해지기 위해 탐욕과 부패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과 부패의 길로 빠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청렴해질 수 있을까? 청렴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찾을 수 있다. '염자안렴 지자이렴(廉者安廉 知者利廉)' 이 말은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는 정약용 선생이 쓴 말이 있다. '염자안렴 지자이렴'이라는 말이 확 와 닿았다. 아마 편안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렴'이라는 단어를 '편안해 질 것이다'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고 편안한 상태를 깨트리면서까지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게 분위기를 서서히 바꿔 나가면 청렴한 행동은 편안하게 살기 위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그래야 부패없는 편안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가 대한민국 그린뉴딜 선도할 것"

조명래 환경부장관 감사 서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4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완성도를 높여 앞으로의 10년을 선도하겠다"고 강조.

특히 "전력거래 자유화, 2023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을 위해 그린뉴딜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그린 모빌리티, 저탄소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수소충전소 기반 확충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

이어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에 적극 협력해 녹색전환과 탈탄소시대를 앞당기도록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약속. 백금탁기자

단체관광객 제주삼다수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의 지원과 단체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삼다수가 지원되고 있어 눈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24일부터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해 제주삼다수를 지원.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언. 김현석기자

미래문화자산발굴단 모집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지난 23일부터 미래문화자산 발굴 및 기록을 담당할 시민참가자를 내달 6일까지 모집.

미래문화자산발굴단은 지역향토연구가 등 전문가그룹과 시민참가자 등 20명 단위로 팀을 구성, 지역 내 105개 마을에서 미래문화자산을 발굴하며 현장답사·기록화 작업 등을 담당할 예정.

참가자 접수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문화도시서귀포 블로그를 통해 양식을 작성,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진행. 현영종기자

사설

원전 오염수 반대, 범도민 관심표명을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임박하면서 핫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에 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당초 방류시기 결정을 27일에서 자국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11월 이후로 연기했지만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부는 인접국인 한반도 전역, 특히 제주 연안 생태계 파괴와 도민들 인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지사와 시민사회단체들만이 아닌 범도민적 관심 표명이 절실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0일 "일본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국내외 재판소에 소송을 내겠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13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23일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국민의

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원 지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의 원전 오염수 반대 주장이 실제 호응을 얻으려면 자신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이 기존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직격탄'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단 결정되면 장기간 대량 방류로 동해나 남해로 유입되는가 하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 도민 발상까지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정부가 기존 우려 표명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 수용 수준의 투명, 안전한 절차에 따른 처리요구 등을 강력 요구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 이전에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도민들도 방류이전에 범도민적 관심표명을 저지에 나서야 합니다. 해양 방류로 방사성 물질들이 도민 건강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빨줄 알았다"는 말이 현실화

되선 안됩니다.

수돗물 관리 총체적 점검 이뤄져야

서귀포지역 수돗물에서 잇따라 발견된 유충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다른 지방에서 문제가 됐던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깔따구 유충은 아닌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 좋기로 소문난 제주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서귀포시 일부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에 대한 현미경 조사 결과 깔따구류 유충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 유충이 인천시에서 발견됐던 등깔따구나 안개무늬깔따구와 같은 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깔따구류 유충 가운데 정확한 종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깔따구류 유충이 발견되면서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여름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제주에선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 1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3차례 특별점검을 받았으나 깔따구 유충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석달도 채 안돼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주도 수돗물 관리가 안심하게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면서 정수장 노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충이 발생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정수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병우 의원이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은 강정정수장 시설 노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83년에 설치된 급속여과지가 40년 가까이 썼다는 겁니다. 강정정수장에 설치한 지 40년이 다 되도록 여과시설을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참에 유충의 발생 원인 규명과 함께 수돗물 관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부 고

허광희(중원 중문가스) 아버지 양천 허공 찬의(향년 83세)께서 서기 2020년 10월 25일 오전 10시 20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 ▶일 포: 2020년 10월 27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28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제2분향실(1층)
▶장 지: 수망리 가족선영

아 들 허광희 며느리 황미연
전 회 김승자
딸 허선희 사 위 김창수
연 회 정진
소 영 강훈석
유 아 오승태

※연락처: 허광희 010-3696-1305
허선희 010-2693-130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풍기진씨 육손(향년 9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26일

딸 박홍열 사 위 김영남
성 열 강민진
강주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진공 성주(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26일

아 들 진정열 며느리 김은희
정 환 박은주
딸 진희숙 사 위 장창식
예 림 후 림
혜 숙 오중찬
영 숙 이해남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광산김씨 봉옥(향년 8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26일

아 들 장승남 며느리 김병화
영 문 김향희
영 원 영원 김성연
영 방
딸 장경희
혜 자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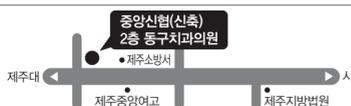
732-5552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